

2024 년 12 월 29 일 “삶의 보람을 채워주시는 주님”(창 2:15; 전 3:22)

'아바드의 사람들'이라는 표어 아래 2024 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 아바드의 삶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삶 속에서 보람을 발견하는 좋은 태도

우리 삶에서 가치를 발견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맡은 모든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 일들이 주어지지만 그 중 한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 그와 같이 다른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은 일들 속에서 연결된 가치들을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전 2:24, 3:22)라고 말씀합니다. '몫'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중요한 사상을 시사합니다.

[2] 하나님이 주신 몫

'몫'의 유의어는 유산, 유업, 기업, 분깃, 상, 소유입니다(민 18:20, 겔 47:13 참고).

(1) 우리에게 몫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지닌 것 또한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내면 세계와 모든 관계를 부요하게 해줍니다.

(2) 이 몫은 누가 발견할까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 사람, 관계를 인내하며 수고하여 가꾸고 지키는 아바드의 사람입니다.

(3) 몫을 얻어 느끼는 보람을 느끼면 삶에 대한 동기가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희망과 활력을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몫을 부어 주길 원하시는데, 사람이 자기중심적 자아에 빠져서 몫에 대한 안목과 거룩한 열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3] 예수님의 관계회복과 동기부여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아바드의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아담의 실수는 뱀의 공격으로부터 삶의 자리(에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관계에 금이 가면 보람을 얻는 통로가 끊깁니다. 그러면 소명을 감당하다가도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관계들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바-자녀의 친밀한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중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유업(몫)을 받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올 한해 동안 보람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에 대해 이성과 안목을 열어 자신을 절제하며 주님이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렸다면(인내했다면) 선한 행동으로 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사랑과 용서 위에 비판과 판단을 자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람을 느끼는 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날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17:13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참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면 생명의 힘이 높아져서 사랑과 용서의 충만을 이루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삶의 보람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품 중 하나를 예로 말씀해 보세요.
2.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왜 중요합니까?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세요.